

## 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제2차 지원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제2차 지원신청
- 회의일시 : 2017. 7. 24(월) 14: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B1 중연습실

가. 2017년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대관료 지원사업) 제 2차 공모에는 연극 118, 무용 24, 음악 100, 전통예술 7건을 합쳐서 총 24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접수 건들 중에서 지원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몇 건 적발되어 이를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의 진행과정에서 심의기준 및 방법에 대한 안내에 이어서 관련 질문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공연작품의 예술성(50%)', '공연단체의 역량(3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20%)'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평가방법으로는 지원신청서 검토에 따른 채점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각 심의위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작품에 따라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배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심의제척사유들에 따라 심의 회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각 심의위원은 공정심의서약서에 서약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의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질문들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고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본적인 심의기준 이외에도, 장르별 특성에 근거한 기준을 각 장르 해당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하였으며, 이를 타 장르 심의위원들은 존중함.
- 연극 분야가 신청건수에 비해서 선정건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결국 장르별 기본 배정액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장르별로 기본 배정액에서 약간의 여유가 남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연극 분야를 위해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합의함.
- 그 이후에도 남는 잔여 예산은 추후 집행될 예산으로 이월시킴.
- 기본적인 심의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지방 신청건들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함.

나. 이상과 같은 심의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채점을 하였으며, 장르별로 책정된 예산 안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서 연극 34, 무용 14, 음악 36, 전통예술 6, 총 90건

을 선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건수 대비 선정건수는 36%에 불과하여 아쉬움과 송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탈락단체(개인)들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지난한 예술작업의 길을 가시는 데 무한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각 장르별 심의기준과 심의 고려 사항 및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극 분야**

- 연극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신청단체(개인)수가 많고, 따라서 선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극 분야 심의위원들은 타 장르의 남은 예산이 연극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지방에 대한 배려와 지역적 안배를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소액 신청을 한 신생단체(개인)들에 대해서도 격려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배려하였음.
- 연극과 뮤지컬 분야를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자 노력하였음. 다만 제작 규모, 공연 내용 및 목적, 대관 기간, 극장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술성보다 상업성과 대중성이 강한 공연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 각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이 이미 결정된 단체(개인)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한 비지원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 작업에 임하였음.

### **무용 분야**

- 단체 및 작품의 예술적 수준 및 단체 역량을 심의의 중심 기준으로 삼았음.
- 서류상 공연의 지속성과 예술적 완성도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난 경우 지원에서 배제했음.

### **음악 분야**

- 단순 개인발표 공연, 비전문가의 공연, 상업적 공연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단, 개인발표에서,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창작 활동이나 특별한 기획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음.

### **전통예술 분야**

- 제출자료 미비 단체를 제외하였으며, 동일 작품으로 기 지원금을 상당 부분 확보한 단체를 고려하였음.
-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우수한 역량과 예술성을 담보한 단체들이 주로 신청하여 높은 선정률이 확보되었음.